

젊은 감각의 문예지 창간 ... 문학 대중화 '바람'



소수 문학 애호가·전문가 중심에서 일반 독자·대중 확대 '아스트(Axt)' '미스테리아(MYSTERIA)' '릿터(Littor)' 인기 감각적 디자인에 사진·그림 첨가 ... 쇄신·변혁 수준으로

최근 출판계에 젊고 감각적인 문예지 창간이 잇따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소수 문학 애호가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 독자와 대중을 고려한 방향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새롭게 창간된 문예지들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명제에 부합하듯 외양과 형식, 내용 모두 기존의 잡지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문학계는 표절, 문단권력 문제로 안팎이 시끄러웠다. 계속되는 불황으로 독자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수 애호가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지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이들은 빠르게 변하는 독자들의 취향과 문학의 흐름을 외면한 채 기존의 방식을 고수해왔던 게 사실이다.

문예지의 파격 변신은 변하지 않고는 외면한다는 자기 성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감각적 디자인에 사진과 그림을 첨가한 편집은 '낡은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닌 쇄신과 변혁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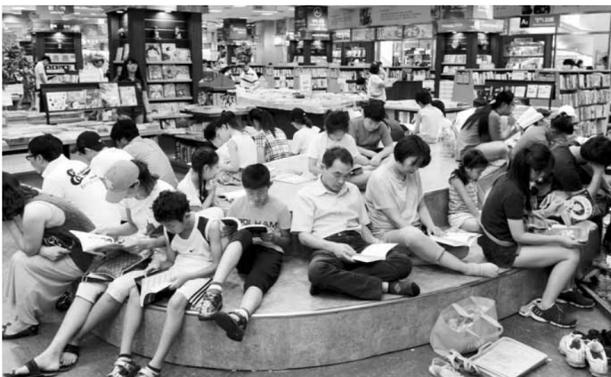
새 문예지 창간은 지난해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출판사 웅남북은 격월간 문예지 '아스트(Axt)'를 창간했

다. "소설을 위한, 소설독자를 위한, 소설가들에 의한" 소설을 특화한다는 명제 아래 국내외 장편, 단편뿐 아니라 서평, 인터뷰(소설가) 등을 수록하는 데 초점을 뒀다. 시와 평론 등을 수록했던 기존의 정통 문예지와 달리 가장 많은 독자들을 거느린 소설에만 집중한다는 계획이었다.

창간 1년이 된 현 시점에서 아스트의 성적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현재까지 7호가 발간됐는데 그 가운데 네 개의 호가 각 1만부 씩 팔릴 만큼 호평을 받고 있다. 한 권 가격이 2900원으로 웅남북 단행본이나 동종의 잡지보다 저렴한 점이 장점이다.

창간 1주년을 맞아 발행한 7호(2016년 7·8호)에서는 약간의 형식의 리뉴얼을 시도하기도 했다. 사진과 시, 영화와 문학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확장을 염두한 시도다. 커버스토리는 소설가 정유성이나 동종의 잡지보다 저렴한 점이 장점이다.

창간 1주년을 맞아 발행한 7호(2016년 7·8호)에서는 약간의 형식의 리뉴얼을 시도하기도 했다. 사진과 시, 영화와 문학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확장을 염두한 시도다. 커버스토리는 소설가 정유성이나 동종의 잡지보다 저렴한 점이 장점이다.



최근 문학계에서는 세련되고 감각적인 문예지 창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들 문예지들이 침체된 문학을 견인하고 독자층의 관심을 이끌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점에서 피서를 즐기는 독자들. <광주일보 DB>

실려 독자층을 즐겁게 한다. '아스트' 창간과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미스테리아(MYSTERIA)'의 선전도 눈여겨볼 만하다. 문학동네가 추리소설 전문 잡지를 표방하며 창간한 미스테리아는 1만4000원의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호가 3000부 나갔고, 6월 호는 4000부를 찍는 등 부수가 증가 추세다.

출판사 민음사는 지난해 말 계간 '세계의 문학'을 폐간하고 새 잡지 '릿터(Littor)'를 창간했다. 릿터는 '문학(Literature)'과 '~하는 사람(~tor)'의 합성어다. 문학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1976년부터 발행해온 기존의 잡지를 중단하고 젊고 감각적인 새 문예지를 만든 것은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로 독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기존의 외부 문인이나 평론가들이 참여했던 '세계의 문학'과 달리, 릿터는 출판사 내부의 젊은 편집자들이 주축이 돼 잡지를 만든다.

시와 소설, 에세이 등 다양한 장르를 다루지만 독자층의 취향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서 기성 문단의 작가나 평론가의 참여

를 과감하게 즐겼다. 창간호의 커버스토리는 '뉴 노멀'로,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경제 상황을 일컫는 용어를 사회 전반에 확장한 것이다. 에세이, 픽션, 리뷰 등 다양한 글이 실려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아이돌 스타 사이니 종현의 인터뷰다. 책에 관련한 이야기와 함께 사진이 포함돼 시선을 모은다. 가격은 1만 원.

최근에 기자 간담회를 연 민음사는 "기존의 문학 독자뿐 아니라 젊은 독자층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들이 문학 잡지를 통해 다양한 문학 작품 외에도 책을 찾아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창간 50주년을 맞는 창작과비평사도 기존의 '창작과비평'과 별도로 새 문예지 창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문예지가 다양한 흐름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젊은 감각의 잡지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창비 관계자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창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콘텐트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제1회 다도 청소년 음악캠프' 폐교 위기 학교 살리기 동문·주민들 마을 축제

조용했던 학교에 활기가 넘쳤다. '나는 나비', '벚꽃 엔딩', '풍선' 등 신나는 라이브 연주가 계속 이어지고, 조금은 어설피지만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의 연주와 노래에 사람들은 박수호 화답했다.

지난 5일 나주 남평중 다도분교장(교장 변정빈)에서 열린 '제1회 다도 청소년 음악캠프'는 참가자들의 발표장이었을 뿐 아니라 온 마을의 축제이기도 했다.

다도분교는 전교생이 10명인 초미니학교. 이날 행사는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리기 위해 학교와 동문회, 마을주민들이 힘을 모아 마련했다. 지난 2일부터 캠프에 참여한 초·중·고 80여명과 김성광씨 등 강사진들은 함께 맘을 쏟으며 익힌 키보드,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 등의 실력을 선보였다. 특히 다도분교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꾸민 무대는 인상적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참가학생들의 가족, 마을 주민, 멀리서 한달음에 달려와준 학교 동문 등 많은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 또 마을 주민들이 마련한,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을 함께 먹으며 정을 나눴다.

다도분교는 앞으로 캠프를 지속적으로 개최, 지속형 실용음악 특성화 학교로 변신을 꾀할 예정이다.

/나주=김미은기자 mekim@



지난 5일 나주 남평중 다도분교장에서는 '제1회 다도 청소년 음악캠프'가 열렸다.

정율성음악축제 '2016 광주성악콩쿠르' 경연 시작

남성부 22개 대학 51명 참여 광주·전남 출신 8명 1차 통과

대한민국 음악계를 이끌 차세대 젊은 성악가를 찾는 정율성음악축제 '2016 광주성악콩쿠르'(이하 광주성악콩쿠르)가 지난 6일 호남신학대 예음홀에서 남성 부문 1차 예선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사진> '광주성악콩쿠르'는 정율성 선생의 음악과 예술혼을 널리 알리고 성악분야 신인 발굴을 위해 광주문화재단이 2012년부터

개최한 행사로 1996년부터 지역 성악인들이 중심이 돼 개최했던 국제성악콩쿠르의 맥을 잇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만하임 국립 음대 등 국내외 22개 대학 51명이 참여한 이날 1차 예선 경연 결과 17명이 2차 예선에 진출했고, 광주 전남 출신 8명도 포함됐다.

13일에는 여성부 1차 경연이 열리며 20일 남성·여성부 통합 2차 예선이 진행된다. 본선은 오는 27일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리며 1등 1500만원 등 총 37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광주성악콩쿠르 홈페이지(http://vmc.or.kr)를 통해 신청하면 본선 경연을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670-79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문화관광재단, 장보고여행학교 참가자 모집

12일까지 ... 참가비 무료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2일까지 장보고여행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장보고여행학교'는 지역 관광자원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접목한 '전남형 토요문화학교' 기획사업 중 하나로 장보고라는 역사인물과 장보고를 둘러싼 역사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장보고 관련 문화유적 관광지를 탐방해보는 역사여행 프로그램이다. '완도 장보고 유적지,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보성 녹차밭 등 장보고와 연관된 유적지를 탐방하 ▲해상무역 체험 ▲장보고와의 대화 ▲장보고여

행학교 포토툰(Photo Toon) 제작 ▲장보고캠프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장보고캠프는 울돌목 관광지에서 장보고와 이순신 두 해상영웅의 활약상을 재조명하며 탐색해보는 시간으로 ▲해상영웅들의 만남을 연극으로 표현해보기 ▲재활용품 활용한 이상 제작 후 무역체험 ▲아밤 영화감상 등 1박 2일 동안 다채로운 체험이 펼쳐진다. 6주씩 총 27수가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되며 기수 당 30명을 모집한다. 체험비는 전액 무료다. 문의 061-5848~9.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깔끔하고 건강한 맛!
화순 요리전문점
샐강 다슬기 성업중!!

샐강 다슬기는 국산 자연산 다슬기로만 4시간 동안 가마솥에 우린 자연의 맛 육수로 손담백숙, 오리백숙 등 모든 요리를 만듭니다.

다슬기의 효능 다슬기의 성질은 차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 간염, 지방간, 간경화 등 간질환의 치료 • 숙취해소와 신경통, 시력보호 • 열독과 갈증 해소
- 위장기능개선 • 위통과 소화불량을 치료 • 빈혈 증세 효과 •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 무지방 고단백질 건강식품 • 간염과 눈의 충혈 통증을 다스리고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각종모임 예약환영
손담백숙, 오리백숙
1시간전 미리 예약

*다슬기 손담백숙
*다슬기 오리백숙
*삼계탕 · 수제비 · 초무침
*다슬기 영양 돌솥밥

샐강 다슬기 화순읍 안양신로 94
☎(061)372-8600
H. 010-5308-7045

광주일보 지사·지국 안내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4년
광주일보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행구독 220-0550

광주시내(062)	전남(061) · 전북(063)
<p>북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광 264-2012 문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안 222-8171 암산 571-7658 오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산 512-8116 중흥 654-2985 담광 222-9440 동명부 222-9054 중부 225-6001 중양 222-1896 중장 222-8171 남부 652-0175 남백 651-1833 봉선 675-5530 하월 675-6605 진월 671-7276 광천 382-5788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운치 376-7153 평평 376-6511 동암 603-0311 화정 369-0583 월곡 941-9174 침단 973-2900 하남 959-1500 광산 944-0444 	<p>동부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흥군 842-2121 곡성군 362-8111 구례군 782-4696 광양시 792-8111 보성군 852-9646 순천시 746-8111 여수시 692-0997 <p>중부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주시 335-5501 강진군 434-6830 담양군 383-8116 영암군 471-1717 장성군 394-0400 장흥군 863-8822 화순군 374-4423 <p>서부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포시 276-9200 무안군 452-8535 신안군 278-8111 영광군 351-1004 완도군 554-6677 진도군 543-0100 함평군 324-8111 해남군 537-6767 <p>전북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시 467-2500 정읍시 531-5544 순창군 652-1920 남원시 626-1601 고창군 010-2815-2267 부안군 582-8118